

의안
번호

3264

2021 05. 04. ~ 2022.05.03.

서울특별시의회 2036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22. 05.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2036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I. 위원회 구성

1. 구성 목적

-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서울시는 2032하계올림픽의 국내유치 도시로 문체부·기재부 승인 및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함.

남·북(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유치는 급변하는 남·북관계 정세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으며 체육 분야 뿐 아니라 교통, 미디어, 의료, 안전 등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바, 서울특별시의회에 2032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특위 활동 중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도시로 호주 브리즈번이 공식 결정(2021.7.21.)됨에 따라 차기 올림픽인 2036년 유치 준비로 전향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 구성 경위

- 서울시는 관광체육국 내 올림픽추진과를 신설(2020.1)하여 문체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올림픽 유치를 위해 협의해 왔으나 남북정세 및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IOC 올림픽 유치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음.

- 올림픽 유치를 위한 통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위해 2020년 10월 16일 유용의원 외 13명 발의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함.
- 2021. 5. 3. 제30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5.4.)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선임안이 의결됨.
- 2021. 5. 4.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유용 의원)과 부위원장(권수정 의원, 이성배 의원)이 선임됨.
- 2021. 6. 4.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를 실시함.
- 2021. 6. 11. 도쿄올림픽 개최 전후(2021. 7. 23.~8. 8.)로 2032년 올림픽 개최도시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평양을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우선협상도시로 선정해줄 것 요청하는 내용으로 ‘2032 서울 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성공 결의안’을 의결함.
-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1년 7월 21일 개최 경쟁도시였던 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차기 올림픽인 2036년으로 목표를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과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2021년 11월 가결됨.

3. 위원 명단

〈서울특별시의회 2036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단〉

구분	성 명	지역구 (상임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 용	동작4 (문화체육)
부위원장 (정의당)	권수정	비례대표 (보건복지)
부위원장 (국민의힘)	이성배	비례대표 (도시계획)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비례대표 (기획경제)
	김경우	동작2 (보건복지)
	김정태	영등포2 (행정자치)
	김평남	강남2 (도시안전)
	송재혁	노원6 (환경수자원)
	이준형	강동1 (기획경제)
	이호대	구로2 (교육)
	임종국	종로2 (행정자치)
	장상기	강서6 (도시계획)
	전병주	광진1 (교육)
	정진철	송파6 (교통)
	조상호	서대문4 (보건복지)

II. 위원회 활동경과

○ 2021. 5. 4. 위원 선임 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함.

차수	일시 및 장소	회의내용
1	2021년 5월 4일(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제1차 회의	○ 위원장 선임 : 유용 위원장 ○ 부위원장 선임 : 권수정 부위원장, 이성배 부위원장
2	2021년 6월 4일(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제2차 회의	○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업무보고
3	2021년 6월 10일(목) 의원회관 7-3회의실	○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식(1차)
4	2021년 6월 11일(금)	○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성공 결의안 발의
5	2021년 8월 27일(금)	○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발의
6	2021년 11월 1일(월)	○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가결 ○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가결
7	2022년 1월 11일(화) 의원회관 7-3회의실	○ 2036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시민참여 서포터스 업무협약식(2차)

8	2022년 1월 13일(목) 의원회관 7-3회의실	○ 2036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시민참여 서포터스 업무협약식(3차)
9	2022년 1월 18일(화) 의원회관 7-3회의실	○ 2036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시민참여 서포터스 업무협약식(4차)
10	2022년 2월 15일(화) 의원회관 대회의실	○ 2036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시민참여 서포터스 업무협약식(5차)
11	2022년 2월 22일(화) 의원회관 대회의실	○ 2036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시민참여 서포터스 업무협약식(6차)

III. 위원회 활동내용

1. 제1차 회의

- 일시 : 2021. 5. 4.(화) 17: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 위원장 및 부위원장(2인) 선임의 건

- 1.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안 건	주 요 논 의 사 항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선임 - 유용 의원
부위원장 선임의 건	○ 부위원장 선임 - 권수정 의원, 이성배 의원

-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특별위원회)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 2021. 5. 4.(화) ~ 2021. 11. 3.(수)(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
- 위 원 수 : 15명 (위원 명단 P3 참조)

○ 활동 사진





2. 제2차 회의

- 일시 : 2021.6.4.(금) 16:00~
- 장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안건 :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의 건

1. 업무보고의 건

- 참석자 : 관광체육국장, 올림픽추진과장 등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I 추진경과 및 유치환경 변화

□ 범정부 올림픽 유치 협력 및 IOC 지속협의 개시(2018~2020)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제안

- ◆ 남북 정상 9·19 평양공동선언('18.9.19)
 -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 IOC 위원장-남북 체육장관(도종환 문체부장관, 김일국 체육상) 3자회의('19.2.15)
 -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남북 공동유치 의향 발표를 “역사적 제안”이라고 호평

○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국내 유치도시 결정을 위한 법정절차 이행

- 대한체육회 국내 유치도시로 ‘서울’ 선정('19.2.11) ※ 경쟁도시 부산
-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시의회 가결('19.9.6)
- 서울-평양 공동유치·개최 추진계획 문체부('19.11.1), 기재부('20.2.20) 승인

○ 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 문체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대한체육회 등 ‘유치추진협의체’ 운영('20.1월~)

- 서울시-민주평통-市체육회 MOU 체결('20.5.27), 국민적 지지형성 협력사업 기반 마련

○ IOC 미래유치위원회 「지속협의」 개시 및 후속 협의 진행

- 서울시를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y)로

인정하고 '지속협의' 절차(Continuous Dialogue) 개시 통보('20.1.30)

- 미래유치위원회와 추진현황 공유 및 심사절차 로드맵 협의 시작('20.3월 ~)

□ 2021년 유치환경 변화

○ '서울-평양 공동개최' 실현가능성에 대한 IOC의 우려 표면화

- 서울-평양 공동유치 리스크 요인 (IOC 미래유치위원회 → 대한체육회 서한('21.2.25))
북한과의 수차례 접촉시도 불발로 판단컨대 북한이 공동유치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매우 큼. 한국의 지속적인 유치 관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가길 희망

○ 호주 브리즈번 2032 올림픽 '후보도시'로 선정, 집중협의 진입('21.2.25)

- 빠르면 도쿄올림픽 전(IOC 총회 : 7.20.~21.) 또는 늦어도 내년까지 개최지 선정
전망



▪ Brisbane 집중협의 승격 이유

올림픽 혁신안인 IOC Agenda 2020에 부합, 기존 올림픽시설 80~90%이상 활용, 팬데믹 하 우수한 기후 여건, 도시 장기발전방향과의 높은 정합성, 압도적인 국내 지지여론 등

※ 주요 관심도시 동향 : 2032 올림픽 유치 노력 지속(카타르 도하), 2036 올림픽 유치도 고려(독일 베를린, 헝가리 부다페스트), 2040 올림픽 유치로 선회(인도 델라-뭄바이)

※ 선정절차 : [기존 평가 후 '복수 후보도시' 총회투표(로비 폐해) ➡ [신규 미래유치위원회 2단계 협의 후 '단수 후보도시' 총회투표(위원장 영향력 커짐), '19년 6월 도입 후 2024 청소년동계, 2032 하계올림픽 적용

〈 올림픽 개최지 선정 주요단계 〉

단계별 특징	주관
① 올림픽 유치 관심도시 지속협의(Continuous Dialogue) ▪ 관심도시(Interested Parties)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 집행위원회 보고 ▪ ‘ 타당성조사(Assessment) ’ ➔ 집행위원회에 ‘후보도시 추천’ ▪ ‘특정 올림픽 전략 프레임 및 후보도시 승인 ’ (사유 공개)	미래유치위 집행위원회
② 집행위 승인을 받은 후보도시 집중협의(Targeted Dialogue) ▪ 기본계획 심사(Evaluation) , 실사(필요시) 및 결과보고 (사유 공개) ▪ 부적격 판단 시 집행위원회는 보완 지시, ‘지속적 협의’ 단계 다시 진행 ▪ 후보도시 총회 제출	미래유치위 집행위원회
③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IOC 총회투표	총회
④ 공동작업 (Co-construction) : 올림픽 개최 종합계획 공동 수립	미래유치위

II 최근 주요 추진실적

□ IOC 미래유치위원회와 지속협의 추진

- 호주 브리즈번 ‘우선협상도시’ 선정(‘21.2.25)에 대해 즉각적인 유감표명
 -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 여건 마련” 이라는 정부 정책기조 견지하여
 - 유감 표명 서한 발송(3.4[시장권한 대행·대한체육회장], 3.5[문체부장관])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우선협상도시 결정(‘21.2.25)으로 2032 올림픽 개최지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서울시에게 아직 기회가 있음” 확인(‘21.2.28 정의용 외교부장관 통화)

- 2032 올림픽 유치제안서 제출 및 IOC 협의 답변서 준비
 - 올림픽 비전과 5대 분야별 콘셉트 및 시설 마스터플랜 등을 담은 **남북 공동개최 유치제안서 제출**(‘21.4.1)
 - 집중협의 대비 IOC 제출용 분야별 유치계획서(6개 분야·93개 항목) 작성중

비 전

- Beyond the Line, Toward the Future
경계와 한계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컨셉트

- (+) 남북이 연결되고, 동서가 화합해 평화를 이루는 올림픽
- (-)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파괴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올림픽
- (÷) 서울-평양 공동 개최로 모두가 함께하는 올림픽
- (X) 첨단 기술과 K-컬처를 통해 세계가 향유하는 올림픽
- (=) 연대와 포용, 선수인권이 존중되는 올림픽

○ 시장친서, 화상회의 등 2032 올림픽 유치의지 직접 피력 계기 마련

– “앞서 제출한 2032 올림픽 유치제안서 대로 유치에 최선의 노력 다 할 것” 표명한 **시장친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전달**(’21.4.23)

➔ “서울시 명예시민으로서 시장 당선 축하하며 향후 서울 방문 시 면담희망” 회신
(’21.4.27)

– IOC 미래유치위원회와 **최초 화상회의 개최**(’21.6.1/DDP)

< IOC 미래유치위원회 화상회의 결과 >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6. 1(화) 16시/ ‘서울-온’ 화상회의 스튜디오**(DDP 살림터 2층)
- 참석자 : **총 16명** (서울-스위스 로잔 IOC본부 연결)
 - [IOC] Kristin Kloster Aasen 미래유치위원장, Jacqueline Barrett 미래올림픽유치과장 등
 - [우리측] 서울시장, 유승민 IOC 선수위원 및 관계 기관 국장(시, 문체부, 외교부, 통일부[과장], 대한체육회)
- 진행일정 : 참석자 소개 등(12’), 유치제안서 발표(28’) 및 질의응답(17’)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6:00 ~ 16:05	5' • 진행순서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서울시 장 IOC 위 원 (유 승 민)
16:05 ~ 16:09	4' • 인사말씀 (각 1~3분) (시장, 유승민 IOC위원, IOC 미래유치위원장)	
16:09 ~ 16:12	3' • 올림픽 홍보영상 상영	
16:12 ~ 16:40	28' • 유치 제안서 발표 및 논의	
16:40 ~ 16:57	17' • 질의응답 및 향후 일정 논의	부처별 국장
16:57 ~ 17:00	3' • 폐회	

주요 논의사항

- (IOC) 서울시 유치제안서에 감명, 향후 지속 발전시킬 수 있기 바람
 -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비전은 올림픽 이념에 부합
 - 콘셉트, 최첨단 IT기술 접목, 기존시설 활용 등의 내용이 매우 인상적임
 -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위해 예외적으로 호주 브리즈번을 2032 올림픽 우선협상도시로 조기 선정
 - 서울시 비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발전시키기를 희망
- (서울시)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올림픽 유치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 유치제안서 대한 IOC의 깊은 이해에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됨
 - 불안정한 남북관계야말로 남북공동개최의 의의를 높이는 것. 계속 관심 바람
 - 관심도시와의 협의 진전 위해 도쿄올림픽 전 2032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기를 바람

범정부 협력을 통한 IOC 대응 및 북한 리스크 해소 노력

- 문체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대한체육회 범정부 공조 활성화
 - 범정부 '유치추진협의회' 장관·차관·국장급 전략 회의(총 8회) 진행
 - ▶ 관계부처 장관급('21.3.22)·국장급('21.2.18/3.24/5.7) 연석회의 진행

▶ 서울시장-문체부장관-대한체육회장 간담회(5.13) 개최

- 도쿄올림픽 등을 계기로 IOC 위원장에게 적극적인 유치의지 표명 피력 필요
- 6월 문체부,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대한체육회 등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 개최

○ 북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 및 IOC 우려 해소

- 통일부 → **리용선 국제태권도연맹 명예총재(북한 NOC 부회장)에게 '서울시 유치제안서' 전달('21.4.5~4.15)**



북한올림픽위원회에서 서울-평양 공동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IOC에 표명하도록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 **민·관자원을 활용한 올림픽 유치 공감대 형성 및 정책대안 마련**

○ 국민 관심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한 올림픽 유치 붐 조성

- 민주평통과 '2032 올림픽 공감 컨퍼런스' 개최('20.11.4/ '21.5.28)
- 1988 서울올림픽의 의미를 재조명한 KBS 다큐멘터리 방영('21.2.20)
- IOC 위원 등 국외용 영문 홍보동영상 제작('21.5)

○ 정부, 대한체육회, 재계, 관계 전문가 참여 자문회의 개최

(최근) 자문회의 개최 개요

◆ 문체부, 대한체육회, 민간전문가 자문회의(4.16)

- 시장 친서, IOC 위원장 면담 및 화상회의 연계 추진안 마련

◆ 삼성전자 자문회의(4.19)

- '올림픽 파트너' 영향력* 활용하여 IOC 위원장 방한 시 또는 도쿄올림픽 기간 중 현지에서 2032 올림픽 개최지 조기 확정 보류 협조 요청

* 올림픽 후원기업(TOP)은 후원금액에 따라 공식파트너, 공식스폰서, 공식서포터, 기부사로 구분. 삼성전자(1998~2028)는 코카콜라, 도요타 등과 더불어 '공식파트너'(14개, 4년마다 1억불 후원)

Ⅲ

향후 추진과제

- ◆ IOC 총회에서 2032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위해 최대 노력 경주

□ IOC 미래유치위원회 지속협의 심화

- 화상회의에서 제기된 이슈, 유치제안서에 구체화 및 지적사항 보완
 - 올림픽 아젠다 2020+5의 세부내용 참고, 인권·연대 등 세부내용 보완
 - 패럴림픽의 비전과 추진계획에 대해 올림픽과 차별 없는 진행안 개발
 - IOC에게 생소한 DMZ, 평양 관련 '올림픽 유산(레거시)'에 대해 후속 논의 필요
 - 향후 기후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는 나라가 없도록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지속협의 심화 매개로 올림픽 개최지 결정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
 - 2032 올림픽 유치에 관심 있는 도시들과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설득
 - ※ 현재까지 2032 올림픽 개최지 확정에 대한 구체적 일정이 없음 확인(6.1)

□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서울 개최

<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개요 >

- ◆ 회 의 명 : 제25차 ANOC총회 ※ ANOC(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 ◆ 기간/장소 : '21 10.22.(금)~10.28.(목) / 코엑스 컨벤션센터 등
- ◆ 참가규모 : 206개국 1,500여명(대표 IOC 위원장, 집행위원, IOC 위원, 각국 NOC 대표 등)
- ◆ 주요내용 : 총회, 집행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 대륙별 회의 등
- ◆ 주최/주관 :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 서울특별시, 대한체육회



- IOC위원 및 관계자 대상으로 '올림픽 개최도시, 서울'의 역량 각인
 - IOC 위원장 면담, 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유치의지 피력 및 스포츠 외교력 발휘

붙임 ①

하계올림픽 역대 개최지(1896~2028) : 총회투표로 결정(1936년~)

1회~12회		13회~24회		25회~34회	
1회	1896년 아테네	13회	1944 [취소] 2차 대전 (후보도시2→런던勝)	25회	1992년 바르셀로나 (후보도시6, <u>브리즈번 3차 투표</u> 까지 <u>감</u>)
2회	1900년 파리	14회	1948년 런던	26회	1996년 애틀랜타 (후보도시6, 5차 투표)
3회	1904년 세인트루이스	15회	1952년 헬싱키 핀란드 (후보도시2)	27회	2000년 시드니 (후보도시5, 4차 투표)
4회	1908년 런던	16회	1956년 멜버른 호주 (후보도시4, 4차 투표)	28회	2004년 아테네 (후보도시5, 4차 투표)
5회	1912년 스톡홀름 스웨덴	17회	1960년 로마 (후보도시7, 3차 투표)	29회	2008년 베이징 (후보도시5, 2차 투표)
6회	1916년 [취소] 1차 대전	18회	1964년 도쿄 (후보도시4)	30회	2012년 런던 (후보도시5, 4차 투표)
7회	1920년 앤트워프 벨기에	19회	1968년 멕시코시티 (후보도시4)	31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후보도시4, 3차 투표)
8회	1924년 파리 (8회)	20회	1972년 뮌헨 (후보도시4, 2차 투표)	32회	2020년 도쿄 (후보도시3, 2차 투표)
9회	1928년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1회	1976년 몬트리올 (후보도시3, 2차 투표)	33회	2024년 파리 (후보도시2→LA 2028 개최)
10회	1932년 로스앤젤레스	22회	1980년 모스크바 (후보도시2)	34회	2028년 로스앤젤레스
11회	1936년 베를린 (후보도시2)	23회	1984년 로스앤젤레스	35회	2032 미정
12회	1940년 [취소] 2차 대전 (후보도시2→도쿄勝→헬싱키) ※ 일본이 중일전쟁으로 개최권을 헬싱키에 넘겼으나 2차 대전으로 결국 취소	24회	1988년 서울 (나고야 등 후보도시2)	36회	2036 미정

★ (총회투표) 올림픽 개최지 선정방식(Instant-runoff voting) : 1936년부터 적

주요 추진 내용	
아시아태평양	<p>[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市 (인구: 228만, 호주에서 세 번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2028년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2016년부터 준비하고 있었음 (파리, LA동시 선정으로 무산) - 바흐 IOC위원장의 최측근으로 IOC 부위원장이자 호주 NOC(AOC)의 회장인 '존 코츠'의 막강한 영향력 - 오랜 기간 준비한 자료와 여러번에 걸친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2032올림픽 유치에 가장 앞선 평가받음 - IOC가 호주를 우선협상대상자(preferred host)로 발표 집중협의(Targeted Dialogue)단계를 시작했음('21.25) - 도쿄올림픽('21.7월)에서 최종 개최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중
	<p>[인도-델리/뭄바이] 2040년 올림픽 유치로 선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억 인구의 거대 시장으로 IOC에서 최고 가치로 인정받았었음 - 인도 NOC 회장, Narinder Batra는 2032 올림픽 대회 유치 경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20. 5월) - 파키스탄- 중국과의 국경분쟁, 코로나 19로 경제위기 등 악재에 직면한 상황 - IOC가 호주를 선호 호스트(preferred host)로 발표한 이후, 2040년 올림픽에 도전하는 것을 검토 중
	<p>[인도네시아-자카르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C 위원장과 '2032 유치관련 회담진행('20. 10월 초) - 조코위 대통령. 올림픽 유치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본격적 준비에 들어갈 것 지시('20. 11월) - IOC미래유치위원회와 화상으로 Continuous Dialogue 진행('21. 2월)
	<p>[중국-상하이/ 청두-충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중국의 경제 중심지이자 ^{1.45억}단일도시 기준 최다 인구 보유), 청두-충칭이 2032올림픽 참가가능성 시사 -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전망 불투명 / 홍콩 사태, 코로나 19의 발원지 등 악재로 국제적 비난과 이미지 실추 - 너무 많은 스포츠이벤트 개최로 국제무대에서 식상
중동	<p>[카타르-도하] 2032 하계올림픽 유치 노력 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하(Doha)는 2022 FIFA 월드컵 개최지이며, 2030 아시안 대회를 개최지로 선정된 스포츠의 도시 - 작년에도 2032 올림픽 유치 의향서 공식 제출 ('20.7.27.) - 호주를 선호 호스트로 선택했음에도 2032 올림픽 유치에 대한 지속적인 대회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
유럽	<p>[독일-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2036년 유치도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만으로도 경기의 80% 개최가능. 그러나 독일 내 부정적 여론 항시 존재, 주민투표제도로 번번이 무산됨 - 독일(베를린)과 이스라엘(텔아비브)이 공동유치하는 안도 검토 중(2차 대전에 대한 화해)
	<p>[헝가리-부다페스트] 2036년 유치도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 전 국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압력을 받아 2024년 유치를 취소한 바 있음 -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p>[스페인-마드리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 '16, '20을 모두 노렸으나 실패, 새로운 체육장관 취임 후 재추진 - 코로나 19로 심각한 경제위기 직면, 작년 2분기 성장률 -21%
동구	<p>[우크라이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및 스포츠 장관(Vadym Huttsait) 2030(동계), 2032(하계) 올림픽 유치에 나설 것을 고려 중 표명

3. 주요 논의 사항

- 서울시 “Post 2032 올림픽 개최지 확정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결과 (2021년 12월 30일) 및 서울연구원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전략”(2022년 2월 7일) 등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논의 중임.

올림픽 유치 실패 요인 분석

□ 남-북한 : 북미 관계 악화와 북한의 불안정성 증가

-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북한 리스트라는 대외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2032 올림픽 유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임

2018.11.02	남북 체육회담 개최 • 2020도쿄 단일팀 출전 •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합의
2018.12.14	남북 체육회담 개최 • 남북단일팀, 2020도쿄 출전 종목 •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사안 논의
2019.02.15	IOC 본부 방문 • 2020도쿄 남북단일팀 종목 합의 • 2032년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의향 전달
2019.02. ~28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2019.05.04. / .05.09	북한 미사일 도발
2019.07.25 08.10	북한 5차례 미사일 도발, 대한민국 정부 비난 및 조롱
2020.09.08	북한, 2020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IOC, 북한 출전 자격 정지 및 재정지원 중단

□ 리더가 없는 유치활동 - Nominal Leader(국가 및 지자체 행정수반)의 역할 부재

- 북미관계에 가로막혀서 남)대통령, 북)위원장, 서울시장 (궐위), 반기문 IOC윤리위원장, 스포츠 스타 및 국제스포츠계 전문가가 공동으로 IOC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

□ IOC의 관점에서 본 2032

○ IOC 유치도시 선정 기준 최근 동향

- 안정적인 대회 유치: 2024, 2028 유치 참여 도시 중 3곳이 중도 포기
- 안정적인 대회 개최: 경험과 역량 보유
- IOC의 정책 방향(어젠다 2020, 2020+5, 뉴놈 등)과의 부합성

○ 2032 브리즈번 선정 배경

- 존 코츠, IOC부위원장의 영향력
- 안정적인 유치 및 개최 가능성
- 2018 영연방대회(Commonwealth Games) 성공개최를 통해 메가스포츠이벤트 (올림픽) 개최역량 증명
- 올림픽 레거시 - IOC 정책 부합

□ 국제스포츠에 무관심한 서울시

○ 2032년 올림픽도 호주 브리즈번에 고스란히 내줘야 했음. 가장 큰 원인이 서울-평양 간의 소통실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원인이 88올림픽 이후 30년이 넘도록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에 대해 무관심한 서울시의 체육정책에서 찾을 수 있음

○ 서울시의 스포츠외교력의 한계

- 단순히 스포츠이벤트 유치에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제스포츠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었음.
- 브리즈번은 지난 10여 년간 퀸즐랜드주와 브리즈번시가 중심이 되어 국제스포츠계와 전방위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왔다. 반면 서울시는 겨우 1~2년만에 올림픽을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믿었고, 국제스포츠계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 정보력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 서울 - 정보조사에 비용을 투입하지 않음

○ 호주는 한국을 알고 있고, 한국은 호주를 모른다.

- 한국에서 활동하는 정보수집 활동 전개 / 호주의 핵심층 동향 및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 서울은 언론으로만 읽는 IOC와 호주를 읽고 있었지만 / IOC와 호주는 조사원이 서울에 파견되어 있었음

□ 예산투입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 서울 : 112억 원 vs 6억 원

- 호주의 올림픽 유치신청서 작성을 위한 비용(= 7.7 million USD = 86억 원)
 - “Premier orders \$10 million study into potential 2032 Olympic Games bid”
 - 2028올림픽 유치 타당성 연구 용역(2015-2016) \$3 mil. (= 2.3 mil. USD = 26억 원)
 - * 당시 브리즈번 시에서만 7.5억 원 부담
 - 올림픽 유치관련 비용은 이미 국제 스포츠 언론에 모두 발표되었음.
- 한국은? 서울은? - 스포츠에 인색한 나라, 인색한 도시 (0.5 million USD = 6억 원)
 -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맞는가? 비용절감?

국제통화기금 자료 (2020 평가) ^[1]			세계은행 자료 (2019) ^[2]			유엔 자료 (2018) ^[3]		
순위	국가/영	GDP (백만달러)	순위	국가/영	GDP (백만달러)	순위	국가/영	GDP (백만달러)
	세계 ^[4]	83,844,988		세계	87,751,541		세계 ^[7]	85,085,189
1	미국	20,807,269	1	미국	21,427,700	1	미국	20,580,223
-	유럽 연합 ^{[5][n1]}	14,926,538	2	중화인민공화국 ^[n2]	14,342,903	2	중화인민공화국 ^[n2]	13,608,152
2	중화인민공화국	14,860,775	3	일본	5,081,770	3	일본	4,971,323
3	일본	4,910,580	4	독일	3,845,630	4	독일	3,949,549
4	독일	3,780,553	5	인도	2,875,142	5	영국	2,855,297
5	영국	2,638,296	6	영국	2,827,113	6	인도	2,779,351
6	인도	2,592,583	7	프랑스	2,715,518	7	프랑스	2,778,892
7	프랑스	2,551,451	8	이탈리아	2,001,244	8	이탈리아	2,084,882
8	이탈리아	1,848,222	9	브라질	1,839,758	9	브라질	1,868,613
9	캐나다	1,600,264	10	캐나다	1,736,426	10	대한민국	1,720,489
10	대한민국	1,586,786	11	러시아 ^[n3]	1,699,877	11	캐나다	1,712,562
11	러시아	1,464,078	12	대한민국	1,642,383	12	러시아 ^[n3]	1,660,514
12	브라질	1,363,767	13	스페인	1,394,116	13	오스트레일리아	1,453,871
13	오스트레일리아	1,334,688	14	오스트레일리아	1,392,681	14	스페인	1,419,735

○ 동계 올림픽 평균 유치비용 평균 35 mil. USD (390억)

- IOC가 ‘올림픽 어젠다 2020’ 이후, 평균 5 mil. USD (56억)으로 축소했다고 자랑

[표]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활동 예산지원 내역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총 계	144	-	42	107	222	515
국 비	57	-	-	29	76	162
지방비	25	-	25	40	37	127
후원금 등	62	-	17	38	109	226

향후 대응방안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발전 모색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치, 군사적 상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평화적인 북한의 핵개발 해결과 폐쇄적인 사회체제 완화,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은 한반도 평화와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는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서울-평양 하계올림픽의 성공적 공동유치를 위해 IOC의 개혁안 이해 필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대회에 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 어젠다 2020'과 '새로운 규범'을 발표하였다. IOC가 발표한 올림픽 개혁안의 핵심은 올림픽대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젊음'이다. IOC는 7년 전 개최도시 선정 규칙을 삭제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유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특히, IOC는 올림픽대회의 레거시(유산)를 강조했으며, 막대한 대회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최 계획을 도시의 발전과 연계하도록 했다.

서울시, 평양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전략 마련 필요

서울시는 역대 올림픽 개최도시와 차별성을 갖되 IOC의 개혁안에 부합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올림픽 공동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제적 시대정신이 반영된 새로운 평화의 비전과 메시지, 즉, '세계와 지구가 회복하는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적 평화의 확산'을 비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전 아래 서울시는 공동유치 추진방향으로 '평화올림픽 재구현', '한반도의 평화적 전환', '남북한 모두의 발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4. 업무협약 등

1. 시민단체와 MOU체결

2032 서울-평양 올림픽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와 서평을사모 간 MOU 체결

협약 체결

업무 협약 내용

◆ “한계를 넘어, 미래로!” (“Beyond the Line, Toward the Future”)

첫째,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파괴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올림픽
둘째, 서울-평양 공동 개최로 모두가 함께하는 올림픽

셋째, 남북이 연결되고, 동서가 화합해 평화를 이루는 올림픽

넷째, 첨단 기술과 K-컬처를 통해 세계가 향유하는 올림픽

다섯째, 연대와 포용, 선수인권이 존중되는 올림픽

○ 활동 사진



일시: 2021.6.10.



일시: 2022.1.11.



일시: 2022.1.13.



일시: 2022.1.18.



일시: 2022.2.15.



일시: 2022.2.22.

4. 안건 발의(2건)

- 안건 1 :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성공 결의안
(2021. 6. 11.(금))
- 안건 2 :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2021. 8. 27.(금))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성공 결의안

(유용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2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6월 11일

발 의 자 : 유용, 김정태,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서윤기,
안광석, 양민규, 이정인,
최영주 의원(10명)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세계평화라는 올림픽 이념 실현의 최적의 도시인 서울·평양을 2032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우선협상도시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함.

2. 제안이유

-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 전·후로 2032년 올림픽 개최도시가 선정될 예정으로 서울·평양을 관심도시가 아닌 우선협상도시로 선정하여 집중협의를 할 필요가 있음.
- 서울·평양 공동개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지원을 결의하고자 함.

3. 이송처

- 국제올림픽위원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성공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는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실현의 초석이 될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성공을 적극 지원할 것을 선포한다.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는 80년간(2032년 기준) 선 하나로 인해 왕래조차 어려웠던 세계유일의 분단국가가 함께 펼치는 평화올림픽이 될 것이다.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경계와 한계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Beyond the line, Toward the Future)”는 비전으로 분단된 남북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환경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연대와 포용, 선수인권이 존중되는 올림픽이 될 것을 확신한다.

IT 강대국이자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K-콘텐츠를 이끄는 소프트 파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평양, 두 도시가 함께하는 올림픽을 통한 폭발적인 시너지를 기대한다.

올림픽 공동유치에 대한 남북 지도자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바,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문제되지 않으며, 불안정한 남북관계 속에서의 공동개최는 평화올림픽이라는 더 큰 의미를 두게 될 것이다.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세계평화라는 올림픽 이념 실현의 최적의 도시인 서울·평양을 2032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우선협상도시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2032 서울·평양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완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2021년 제25차 ANOC(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 총회의 성공적인 서울 개최 지원으로 국제 스포츠 도시 서울의 위상을 강화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결정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마중물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21. .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

Resolution on Successful Bid to Jointly Host the 2032 Summer Olympics and Paralympics by Seoul and Pyongyang (Draft)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declares that it will provide active support for the successful bid to host the 2032 Seoul-Pyongyang Summer Olympics and Paralympics, which will be the cornerstone for realizing world peace through sports.

If co-hosted by Seoul and Pyongyang, it will be Peace Olympics, staged by the world's only divided countries where a line has prevented traffic between the two for the past 80 years (as of 2032).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firmly believes that the 2032 Seoul-Pyongyang Summer Olympics and Paralympics will connect the divided South and North Korea under the vision of "Beyond the Line, Toward the Future", minimize economic and environmental risks, and promote solidarity, tolerance and respect for athletes' human rights.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expects Seoul, the capital city of South Korea, which is an IT powerhouse as well as a soft power with K-contents fascinating the world, and Pyongyang, a treasure trove of abundant resources, to create explosive synergy by jointly hosting the Games.

As there is already a consensus among the leaders of the South and North on the joint bid for the Olympics, concerns about the uncertainty in inter-Korean relations are not a problem. And the joint hosting in the unstable inter-Korean relations will have greater significance as the Peace Olympics.

For the joint hosting of Summer Olympics and Paralympics by Seoul and Pyongyang,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resolves as follows.

1.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requests that Seoul and Pyongyang, the ideal cities for coming true the Olympic vision of world peace, be selected as preferred host cities for the 2032 Summer Olympics and Paralympics.

1.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shall inform the public that the 2032 Seoul-Pyongyang Olympics are an important prerequisite to complet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e various activities to spread consensus.

1.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shall strengthen the status of Seoul as an international sports city by supporting the successful hosting of the 25th ANOC (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 General Assembly in Seoul in 2021.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reaffirms that a decision by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to hold Summer Olympics and Paralympics in Seoul and Pyongyang would become the stepping stone for the only divided countries in the world to move toward peace and reunification.

on 2 July 2021

All Members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유용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3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27일

발 의 자 : 유 용, 권수정, 김경우,
김평남, 이성배, 이준형,
이호대, 임종국, 전병주,
정진철 의원(10명)

1. 주문

- 2021년 5월 4일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2036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2021년 5월 4일 구성함.
- 당초 동 특별위원회는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도시가 2020년 도쿄 올림픽(2021년 7월 23일~8월 8일) 개최 전·후로 선정될 것을 대비하여 급변하는 남북관계 정세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와 체육, 교통, 미디어, 의료, 안전 등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을 위해 구성되었음. 그러나 경쟁도시였던 호주 브리즈번이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차기 올림픽인 2036년으로 목표를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2036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칭변경안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 2036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한다

주문 중 2021년 5월 4일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의회 2036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IV. 활동 결과

-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 간 협의 정체 및 북측의 미온적 태도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1.7.21. IOC 총회에서 호주 브리즈번이 올림픽 유치지로 최종 결정됨.
- 서울시는 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속협의단계에 진입하여 IOC와 후속 올림픽 유치를 위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상황인바, 유치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2036년 이후 후속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여부 및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역대 올림픽 개최도시와 차별성을 갖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올림픽 공동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후 평양과의 공동유치 추진이 될지, 단독 유치를 추진할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과제로 남아있음.

<붙임1>

2021.5.4.(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담당의원 : 유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수석전문위원	김 경 욱	2180-2106
전 문 위 원	강 현	2180-8114
입법조사관	박 지 혜	2180-8117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유용 위원장, 권수정·이성배 부위원장 선임

“올림픽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정부 및 여야 협력 강화 기대”

-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5월 4일(화)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2032 올림픽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을 위원장으로,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 이성배(국민의힘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동 특별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에 대비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서대문4, 보건복지)과 김정태 운영위원장(영등포2, 행정자치), 송재혁 예결위원장(노원6, 환경수자원)을 비롯한 11개의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체육 분야 뿐 아니라 교통, 의료, 안전, 보건복지, 예산 등 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다각도적인 정책 제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2032 올림픽특위 유용 위원장은 “서울시가 문체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대한체육회를 포함한 범정부와 공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호주 브리즈번의 우선협상도시 선정이 올림픽 유치 도시 최종 선정은 아니므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후속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권수정 부위원장은 “10년 후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유치지원 단계부터 선배, 동료 위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이성배 부위원장은 “2032 올림픽에서 선수로 활동할 학생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체육시설도 틈틈이 방문하고 있다. 넓게는 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고, 좁게는 미래 꿈나무인 엘리트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향후 제2차 회의에서는 서울시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를 비롯한 관계부서로부터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장기 비전에 입각한 분야별 준비방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유용 위원장과 권수정, 이성배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 권영희(비례,기획경제) ▲ 김경우(동작2, 보건복지) ▲김정태(영등포2, 행정자치) ▲김평남(강남2, 도시안전) ▲송재혁(노원6, 환경수자원) ▲이준형(강동1, 기획경제) ▲이호대(구로2, 교육) ▲임종국(종로2, 교육) ▲장상기(강서, 도시계획) ▲전병주(광진1, 교육) ▲정진철(송파6,교통) ▲ 조상호(서대문4, 보건복지)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붙임2>

2021.6.11.(금)

이 보도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담당 의원 : 유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장수 : 3장

수석전문위원	김 경 옥	2180-2106
전 문 위 원	강 현	2180-8114
입법조사관	박 지 혜	2180-8117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서평올사모(서울·평양올림픽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MOU 체결!

“올림픽의 성공적인 공동개최 유치를 위해 온 역량 다해 협력하기로”

-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더불어민주당, 동작4)는 6월 10일(목) 오후 4시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서울평양올림픽공동개최유치를 위한 시민서포터스단체인 서평올사모(서울·평양올림픽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5월 4일 제1차 회의를 거쳐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지난 6월 5일 창립한 서평올사모는 시민서포터스단체로 서울-평양 올림

픽 개최를 매개로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 실현이라는 IOC의 비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향한 대한민국 정부의 오랜 염원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점과 대회 개최가 가져올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하며 이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을 모색하고 있다.

-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계를 넘어, 미래로!”(“Beyond the Line, Toward the Future”)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다섯 가지의 모티브를 협약서에 담았다.

첫째,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파괴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올림픽

둘째, 서울-평양 공동 개최로 모두가 함께하는 올림픽

셋째, 남북이 연결되고, 동서가 화합해 평화를 이루는 올림픽

넷째, 첨단 기술과 K-컬처를 통해 세계가 향유하는 올림픽

다섯째, 연대와 포용, 선수인권이 존중되는 올림픽

-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유 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의 우선협상도시 선정이 올림픽 유치 도시 최종 선정은 아니므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서울시가 문체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대한체육회를 포함한 범정부와 공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서평올사모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후속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이라고 하였다.

<붙임3>

2022. 2. 16.(수)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유 용 위원장
(2036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의원명 : 유 용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
2036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시 의 원	유 용	010-5122-9200
의원연구실	사 무 실	02-2180-8641
	F A X	02-2180-8645

유용 위원장, 2036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추진 서울시 주도 촉구

유용 위원장 서울평양올림픽서포터즈 업무협약식 통해 민·관 공조체계 발판 마련

2036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한 열기가 뜨겁다.

2월 15일, 서울시의회 2036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유용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은 서평올사모와 함께 각계각층 민간단체 및 문화예술인 등과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즈 업무협약식을 갖고 2036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새로운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즈가 된 단체는 인사아트프라자(박복신 회장), SBS슈퍼모델 아름회(김재범 회장), 문화예술인 좋은 사람들의 모임(김형일 회장), 국민경제(윤봉섭 대표), 한국기업자산연구원(강태우 대표), 로스트엔터테인먼트(배준범 대표), 복지라이프협동조합(정기현 이사장), 한국새생명복지재단(송창익 이사장), 우리촌TV(정안숙 대표), 국보문인협회(임수홍 이사장), (사)한국유권자총연맹

(서정태 총재),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협회(김인배 회장), 영지한복(김성애 대표), J-ONE(김영화 대표), 아리에술단(민지영 단장), 메라사진 협동조합(박용호 이사장) 등이다.

또한 아역배우 방서희, 영화배우 윤나라, 배우 이성훈, 아나운서 나연진, 모델 나운제, 마술사 안효근, 가수 동동과 정세희 등이 홍보대사로 위촉 받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 유용 위원장은 서평올사모(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2021년 6월 창립)와 함께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의 공조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서포터즈 업무협약식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차례 어려움도 있었다. 본래 서울시는 2032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2021년 2월 25일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32년 올림픽우선협상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선정해 유감을 표시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유용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평양간의 공동올림픽 추진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올림픽 현장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서울시가 2036년 올림픽에도 계속적으로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추진하도록 독려해왔다.

유용 위원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상황에 우려하는 전세계인들에게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의 개최는 스포츠를 통한 세계평화의 실현이 여전히 유효하고, 한반도의 전쟁 종식도 가능함을 보여줄 것”고 밝혔다.

또한, 유용 위원장은 “지난 2032 올림픽 유치 시에도 서울시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제대로 된 유치 경쟁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특히 지난 평창올림픽부터 각인시켜온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K-컬처가 전세계인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요인”이라며, “RE100을 달성하면서도 기술적·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장서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서울시의 분발을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2036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오늘과 같은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즈 업무협약식을 더욱 추진해 민·관 협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하고,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 전략을 계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